

# ‘사커루’ 잡고 55년만에 우승컵 든다



2015 AFC 아시안컵 결승전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이호주 시드니의 코기라 오벌에서 훈련하며 러닝으로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슈틸리케 감독



## 한국-호주 내일 오후 6시 아시안컵 결승전 기성용·손흥민 최상의 컨디션 “자신 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55년 만의 아시아 정상으로 가는 최후의 한판승부에 들어간다. 우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31일 오후 6시(한국시간)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최국 호주와 2015 아시안컵 결승전을 치른다.

한국은 1956년 홍콩, 1960년 서울 대회에서 우승한 뒤 55년 동안 아시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결승전에도 1988년 카타르 대회 이후 무려 27년 만에 올라 호주의 일전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9위로 호주(100위)보다 강한 상대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호주는 이번 대회 준결승까지 5경기에서 12골을 터뜨리며 막강한 화력을 보여줬다. 개최국으로서 이전까지 누리는 까닭에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특히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는 관중 8만4000명을 수용하는 대형 경기장으로서 현지 관중의 열띤 응원이 예상된다.

안체 포스테코글루 호주 감독은 “전체 호주

의 응원이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스트라이커 이정협(상주 상무)은 “8만 관중 앞에서 우리가 기록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슈틸리케호에서는 이정협이 최전방 공격수로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좌우 윙어에는 손흥민(레버쿠젠)·한교원(전북 현대),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남태희(레퀴아)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한 방을 갖춘 이근호(엘 자이시)도 2선 공격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간판 골잡이 손흥민은 대회 초반의 몸살 후 유증을 완전히 털어내고 절정의 컨디션을 되찾고 있다.

중앙 미드필더 듀오는 주장 기성용(스완지 시티)과 박주호(마인츠)가 포진해 공수를 연결한다. 좌우 풀백은 김진수(호펜하임), 차두리(FC 서울), 센터백으로는 곽태휘(알힐랄), 김영권(광저우 헝다)이 맡는다.

골키퍼 장갑은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이 끼고 수비진과 함께 무실점 전승을 수호할 태세

를 갖추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호주도 정예원들을 모두 내보낼 계획이다.

최전방에는 베테랑 스트라이커 팀 케이힐(뉴욕 레드불스)이 나서고 좌우 날개는 로비 크루스(레버쿠젠), 매튜 레키(잉글슈타트)가 펼친다.

미드필드진은 마시오 루용고(스완타운), 밀레 예디나(크리스탈 팰리스), 마크 밀리건(멜버른 빅토리)이 포진한다. 좌우 풀백은 제이슨 데이비스(웨스트브로미치), 이반 프란지치(토르페도 모스크바), 센터백은 매슈 스피라노비치(웨스턴 시드니), 트랜트 세인즈버리(츠블리)가 맡는다. 골키퍼는 매트 라이언(클럽 브뤼헤)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17일 호주와의 조별리그 3차전 맞대결에서 이정협이 결승골을 터뜨려 호주를 1-0으로 꺾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당시에는 다른 전열을 들고 나와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성용은 “우리가 부상자, 컨디션 난조 때문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 것은 미안가지”라며 “호주가 꺾기 어려운 점은 홈 이점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호주와 지금까지 25차례 맞붙어 7승10무8패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게 탄 얼굴로 광주 FC “클래식 무대 우리가 접수”

### 광양 1차 전지훈련 마무리... 다음달 2일 일본 시즈오카서 본격 담금질

1차 광양 전지훈련을 끝낸 K리그 클래식 광주 FC가 잠시 숨을 고른다. 내달 2일 일본 시즈오카에서 클래식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다.

광양으로 떠났던 광주 FC 선수들이 2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돌아왔다. 지난 12일 전지훈련에 돌입했던 선수들은 이날 프로필 촬영을 위해 새 유니폼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28일까지 17일간 진행된 1차 전지훈련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남기일 감독이 선수들의 부상을 걱정할 정도로 선수들은 의욕적으로 훈련에 임했다.

남 감독은 “신인 선수들의 전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선수들과의 전술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며 “부상을 입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선수들이 의욕적으로 훈련을 했다. 감독으로서

는 기분이 좋았던 캠프였다”고 평가했다.

검게 그을린 선수들의 얼굴에서도 광양에서의 치열했던 시간을 엿볼 수 있었다. 한눈에 봐도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선수들은 광양으로 떠나기 전과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

광주색을 입히기 위한 기술적인 훈련은 물론 그라운드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몸만들기가 동시에 진행됐다. 팀에 새로 합류한 김레미 피지컬 코치의 혹독한 관리가 이뤄지면서 선수들은 근살을 줄이고

날렵한 몸으로 돌아왔다.

골키퍼 재중현은 “하루 4차례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기도 하는 등 힘들기는 했다. 체지방 관리를 하느라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훈련 잘 치르고 왔다. 캠프에서 8kg나 몸무게가 줄었다”고 웃었다.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안방으로 돌아온 선수들은 29일 클래식 무대에서 사용될 프로필 사진을 찍으며 올 시즌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다 눈까지 내리면서 단체 촬영을 하면서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다. 고된 훈련 뒤 짙지만 달콤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2차 전지훈련이 시작되는 내달 2일까지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선수단은 2일 김포공항에 소집돼 오는 23일까지 일본 시즈오카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치른다.

남 감독은 “앞으로 광주의 색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술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가야한다. 1차 훈련에서 새로 합류한 선수들은 의욕이 앞서고, 기존 선수들은 아직 지난 시즌의 피로가 풀리지 않은 모습이었다”며 “광양에서는 개인적인 성향을 광주에 맞게 바꾸는 데 시간을 들였다면 시즈오카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술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겠다. 클래식 무대에서도 우리 팀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에서 1차 전지훈련을 끝낸 K리그 클래식 광주 FC 선수단이 2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 드래곤즈

### 홈경기 시즌권 판매



K리그 클래식 전남 드래곤즈가 2월27일까지 2015시즌 홈경기 시즌 티켓을 판매한다.

티켓은 구단 홈페이지(www.dragons.co.kr) 및 티켓링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 가격은 6만원이다.

시즌권 구매자는 홈 21번의 경기(K리그 클래식 19경기, FA컵 2경기)를 모두 관람할 수 있다. 또 전남 홈페이지에 멤버십 등록을 마치면 플레이어 에스콰드, 선수와 하이파이브, 경품추첨, 경기일정 문자 안내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판매는 2월27일까지 이뤄지며 자세한 것은 구단 사무실(061-815-0130)로 문의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